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1월 24일(일) 제1517호



사진은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로”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30일 양재 사랑홀
권사 149명(명예권사 6명, 권사 143명), **안수집사 505명**(남 171명, 여 334명)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세워지는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11월 30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149명(명예권사 6명, 권사 143명), 안수집사 505명(남 171명, 여 334명)이 임직된다

(11월 20일 기준).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은 남자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 검정색 또는 짙은색 바지

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 또는 셔츠다. 당일 교회 주차장은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양재주차빌딩(양재역주차장, 서초구 강남대로 221)을 이용해야 한다(비용 개인 부담). 이날 12시~16시 30분, 18시~19시 30분 양재역과 교회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지난 9

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 '2024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 등을 주제로 훈련을 받았다.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독서보고서 등 개인영성 훈련과 러빙핸드, 주차 봉사, 성찬 포도주 담그기 등 봉사활동도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4 엔젤트리 사연 게시

11월 23일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

'2024 엔젤트리' 사연 2,600여 건을 11월 23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게시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는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성도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와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에서 사연을 뽑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면 된다. 이웃에게 전달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4 엔젤트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대상자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도록 배송을 서둘러야 한다. 사연이 연결되면 엔젤트리본부에서 개인 연락처로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 준다.

문의: 02-3215-3434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11월 27일 서빙고 본당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교사와 부모, 성도들 참여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가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다음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차세대 교사와 부모,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은 다음세대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은혜의 장(場)이다. 파워스테이션(차세대 찬양팀)의 찬양,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에게 올바르게 선한 영성을 전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중보기도 하는 자리다. 지난 3월 열린 상반기 차세대 교사 부흥 집회에는 교사와 부모 1,181명이 참석했다.

/ 홍하영 기자

12월 14일 탁구인 맞춤전도집회

온누리청소년센터 지하 1층 체육관

2024 탁구인 맞춤전도집회 '핑퐁 in Love'가 12월 14일(토) 오후 2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맞춤전도집회 '핑퐁 in Love'에서는 탁구대회, 식사, 설교,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양영자 선교사(88년 서울올림픽 탁구복식 금메달리스트, 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수 이무송, 색소폰 연주가 심상중, 가수 하다쉬 뮤직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이다.

문의: 010-3772-3686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회적 지위나 전문적인 지식,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폭풍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당황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가 “기도를 배우기 원하면 바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폭풍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붙평하고 항의하는 인생들에게 그분의 주권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 속에서 호소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많은 권면에도 화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그가 하나님이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질문 하시자 비로소 화개했습니다.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뜻대로 되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폭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요나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폭풍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불어 닥친 폭풍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속에서 찾아오셨습니까? 폭풍이 끝나고 잠잠해 질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왜 폭풍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휘몰아치는 폭풍 한 가운데서도 평안히 걸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기 원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잠잠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시자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봤지만, 경배 드렸다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때도, 군중에게 설교하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폭풍 속에서 걸어오셨을 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

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폭풍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매우 근거 있는 충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다시 한 번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립바 2세 등 로마 통치자들의 심문을 받은 이후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매우 길입니다. 3,200km나 됩니다. 오늘날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에 배를 타거나 육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가면 바다가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곡물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계속 역풍이 불어와서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해 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9~11절).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친숙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친숙한 민족은 남쪽 애굽 사람들, 북쪽으로 페니키아,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항해에는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인데 특이하게 바다 여행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난파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루 밤낮 나무 기둥을 붙잡고 바다를 떠다닌 적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경험보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다가올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절기적으로도 바울은 근거 있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그 시기가 언제든지를 설명해 주는데, 양력으로 10월 초순경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 경부터 11월 중순까지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매우 근거 있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계속 항해해다가는 재난을 만나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

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의 충고보다 선장과 선주가 훨씬 전문가이기에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할 경우가 언제입니까? 전문가가 진실할 경우입니다. 전문가가 올바르게 정직한 경우에는 그 말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진실과 공의를 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다수 사람이 모르는 영역, 소수의 전문가만 아는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만 알기에 우리만 모른척 하면 진실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작이 일어나고, 진실이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진실할 때만 그 전문성이 합당합니다.

폭풍이 부는 바로 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이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항해가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했는데, 그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선주는 계절적인 위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항해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큰 곡물선입니다. 이 배는 하루라도 빨리 이탈리아로 가야 경제적인 이득이 주어집니다. 욕심과 조급함이 큰 사고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런 일 아닙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못 할 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더 빨리 가서 조금 더 이익을 보려는 욕심이 위험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때 더 큰 위험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결국은 그 계절이 가져오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습니다. 구명정을 붙들고 매고, 밧줄로 선체를 묶고, 닻을 내리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버렸습니다. 소망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20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라는 말은 방향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이 GPS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해와 별을 보고 항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계속 불어 닥치자 구조될 소망까지 포기했습니다. 결국 버려서는 안 되는 소망까지 버리게 된 인생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배의 닻을 내려도 소망의 닻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아비규환이 되었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망까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폭풍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고,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속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부드럽게 바람이 순풍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니까 ‘선장과 선주가 한 말이 맞나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풍을 따르겠습니까? 폭풍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느 편을 선택 할까요? 순풍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풍이 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쁜 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악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풍에 잘 속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풍이 불어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 순풍을 따라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폭풍이 다가올까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며 ‘과연 내가 이 폭풍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폭풍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사람들 안심시키고, 당부하며 그들을 이끍니다.

‘인생의 주인’과 ‘영적 주도권’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22~26절).

바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둘째, ‘네가 가야 할 곳에 서야 한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음성입니다. 셋째,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겼다’는 음성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배의 영적 선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지도력은 폭풍 속에서 드러납니다. 폭풍이 오면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폭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배는 폭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배의 영적 주도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님의 음성을 들으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수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낙태가 자유롭게 용인되는 일이 법으로 제정되면 얼마나 많은 아기가 죽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교회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생명을 해치는 수많은 폭풍이 불어올 때 영적 선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거센 폭풍 속에 사람들이 휩쓸려 갑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폭풍들이 유럽과 북미를 휩쓴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없어서 그런 법이 제정되었습니까? 그런 문화가 일반 문화가 되었겠습니까? 이제야 각성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영적 주도권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네게 맡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도 영적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가 피고인 신분이었고, 법에 의해 제한받는 인생이었지만 양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는 영적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정을 띄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해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이 구명정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살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구명정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명정을 타면 폭풍이 피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때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평안하게 감사하며 식사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가운데 평안히 식사 모습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있었는데 평안히 잠을 자시던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황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리더십,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 했던 이들 모두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 명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음을 찾아오신 것처럼, 요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날 때,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때로 소망까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폭풍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죄 판단의 주권 (2)

죄 판단의 주권을 향한 인간의 도전

지난 글에서 인간에게는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도덕 규범 혹은 자연법이 그 안에 심겨 있고, 도덕 규범을 통해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악한(malum in se)’ 절대적 영역에 속한 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악한(malum in se)’ 절대적 영역과 달리 인간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해서 그 위반을 판단하는 상대적 영역의 죄(malum prohibitum)가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자연법이 절대적 선악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면이 있다. 자연법의 존재가 절대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이 인간들에게 예외 없이 발견된다면 도대체 누가 개성이 저마다 다른 인간에게 지역적, 시대적 보편성이 담보된 도덕 규범을 심어 놓은 것일까?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일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도덕 규범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설계하고 인간에게 이식한 존재가 없다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한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배후는 “(도덕 규범이 심어진 인간이 존재하는 현 세상) 우주 밖의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고 했다. 그 존재는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만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다. 우리는 이 우주 밖에 계신 배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진 도덕 규범이라는 창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한다. 창조된 세상을 비롯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도덕 규범이 프로그램된 인간을 보면 우주 밖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 그 기준은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변한 적이 없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이 이제 도덕 규범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바벨탑을 쌓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변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포스트모더니즘 옹호자들이 자기가 남에게 한 약속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남이 자기한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할 때 어떤 ‘불공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기준이 늘 유동적이어서 ‘그건 옳지 못해’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어떤 질서로 유지될 수 있고, 어떤 유효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얼마 전 강남대로 대형 광고판에 두 여인이 입맞춤하는 동성에 광고가 실리자 많은 시민이 항의했고, 강남구청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으며 광고 삭제를 지시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광고가 거북하고 부자연스러우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편적 도덕 규범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경뿐 아니라 인간에게 심어진 도덕 규범을 통해서도 동성애가 불편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인지하도록 프로그램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은 양심 코드가 발동해서 남녀가 구분되고, 동성 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도덕 규범에 의해 자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도덕 규범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이것이 ‘가증스러운 죄(레 20:13)’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동성에 행위는 그 자체로서 악한 ‘malum in se’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서는 강남구청이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적 자세를 표출했으므로 바로 시정 명령을 받거나 혐오 발언을 한 데 대한 피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강남대로 대형 광고판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반복 학습하게 된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성령명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체로서 악한’ 절대적 영역에서 상대적 영역(malum prohibitum)으로 옮기는 시도이고, 하나님께 고유한 죄 판단의 주권 영역을 인간이 건드리는 도전이다.

친분이 있는 한 상담 선생님이 해 주신 이야기가 있다. 퀴어축제를 주도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주장하고, 거리 행진에 앞장서던 리더들이 퀴어 축제가 끝나면 자신에게 상담받으러 많이들 온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와 달리 내면이 내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인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청한다는 것이다. C.S.루이스가 이야기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기묘한 생각’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갈등과 부자연스러움을 이들이 겪는 것 아니겠는가? 어쩌면 다행인 것은 여전히 그들 내면의 도덕 규범이 발동하고 있고, 도덕 규범이 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무모하게 바꾸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복음 안으로 들어와 말씀 안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한다. 교회가 이들을 위한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 개역개정).



노지준 목사
(서초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1984년〉 시대가 도래한 영국

영국은 20세기 독재에 용감하게 저항하던 전통에서 전향해 21세기에는 독재를 포용하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보수 정당이 주도하는 영국 의회가 조지 오웰이 허구적으로 그려냈던 ‘사상 범죄’를 현실로 만들었다. 하원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낙태클리닉 주변에 검열 구역을 설정하고, 이 근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조차 불법화하는 안에 209대 116으로 찬성했다. 영국 자유수호연합 한 변호사는 이 투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투표는 이 나라의 기본권과 자유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다. 의회에는 절대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사상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수용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의회는 검열을 지지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과 합의에 의한 대화와 같은 평화적인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은 무의미한 협박이 아니다. 지난달 ‘이사벨 본-스프루스’와 ‘손 고프’가 공공장소에서 기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행히 버밍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공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깨울 정도로 소란스럽게 기도했다고 체포되

지 않았다. 그들은 낙태클리닉 밖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고프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동안 본-스프루스는 경찰이 그녀가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고프는 사제복을 입은 사실 자체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찰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최근 한 영국 남성은 ‘자부심(성 소수자 상징) 깃발’에 대해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의 트윗을 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그의 발언이 ‘매우 모욕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거의 웃음거리가 될 상황으로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테러 방지 대책위원회가 최근 〈1984년〉과 〈멋진 신세계〉뿐만 아니라 톨킨의 〈반지의 제왕〉, G.K. 체스터튼의 시, 셰익스피어 작품 전부를 ‘극우’ 성향의 징후로 볼 수 있는 목록에 포함했다. 자유를 옹호하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영국이 어떻게 자국의 문화가 세계에 배출한 가장 위대한 고전 중 일부를 위협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기도와 평화적인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로 발전했을까? 아이러니에 대한 인식이 유쾌하게 잘 발달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1984년〉 같은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고 걱정할 수 있을까?

위대한 사회 비평가故 닐 포스트먼은 한때 미국인들이 1984년 서구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막상 올더스 헉슬리의 전체주의적 악몽을 그린 〈멋진 신세계〉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관찰했다. 포스트먼은 “오웰이 두려워했던 것은 책을 금지하는 사람들이었다. 헉슬리가 두려워한 것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오웰은 우리에게서 정보를 빼앗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쥐 버려서 사람들을 수동적인 이기주의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당시 포스트먼이 옳았다. 우리는 비인간적인 구치소나 고문실, 독재자의 감시 화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집과 주머니에서 빛을 뿜어내는 직사각형들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오웰이 상상했던 노골적인 전체주의보다 헉슬리가 상상했던 사소한 쾌락에 사로잡힌 세계를 더 닮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쫓

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로잡힌 이미 멋진 신세계에서 1984년을 실현하는 게 얼마나 더 쉬운지를 포스트먼이 놓쳤을지도 모른다.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한때 서양에서 가장 소중한 문화적 자산 중 하나였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유는 이제 국가와 사회의 결합된 이익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단순히 동의만 할 수 있는 권리로 약화되고 있다.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 단지 서구적이거나 심지어 미국적인 가치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성에 속해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교회는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은 세계에서 자유를 옹호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보다 먼저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며, 모든 지상의 권력보다 높은 권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방어할 가치가 있는 공동의 선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기 없는 사람들을 검열하려는 폭정으로부터 사람들을 정말 보호해 준다.

/ 존 스톤스트리트, 티모시 패짓

원문: breakpoint(20230315)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람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바로 ‘크리스티나’의 행동이다. 아들 스테반의 억울한 죽음에도 ‘크리스티나’는 그저 하나님께 얹드리 기도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뮤지컬 〈바울과 나〉의 김효선 작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9일(화) 김효선 작가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뮤지컬 〈바울과 나〉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것입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 그리고 김효선 작가

김효선 작가는 SBS 미니시리즈 〈아름다운 그녀〉, KBS 드라마 〈반쪽이네〉 등 다수의 드라마를 집필한 베테랑 드라마 작가이다. 그런 그녀가 기독교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한 통의 전화였다.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회 부활절 연극 대본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극은 생각도 해본 적 없어서 거절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결국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글을 쓰려고 성극 대본을 찾았는데 대부분 너무 오래됐거나 성극 대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문화와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즈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작품을 만들라. 기독교 문화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독교 문화를 널리 알리려!”

김효선 작가는 누구보다 문화가 사람,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자극적인 세상 문화가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이었다.

“문화 분야에 크리스천이 많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치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 ‘좋은나무좋은 열매’를 설립했습니다. 극단을 만들고 기독교 뮤지컬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뮤지컬 〈더 나은 노래〉입니다.”

기독교 뮤지컬 공연을 올리면서 김효선 작가는 드라마를 집필했을 때와 차원이 다른 경험을 했다. 기독교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는 사명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무신론자였던 제자가 제 공연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집필했던 수많은 작품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작품을 쓴다는 것, 그것으로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관련 작업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공연을 관람

하는 관객 수를 일반 공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이 받는 은혜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헤아릴 수 없는 굉장한 매력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살아갈 이유

김효선 작가는 기독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지금 시대는 분노가 팽창하고 복수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가치가 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용서의 힘을 바로 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용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힘을 전달할 매개체로 바울의 회심 과정을 썼습니다.”

김효선 작가는 바울을 선택하고 그의 회심 과정을 집필하며 가상의 인물 ‘아니스타’를 등장시켰다. 그 이유도 용서의 힘과 맥을 같이 한다.

“역사적인 인물을 무대 위에 올렸을 때 단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객이 받는 감동과 별개로 그 인물의 삶과 관객의 삶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잘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작자로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의 삶과 관객의 삶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물을 만들면 관객들이 자기 자신을 투영해볼 수 있겠다’는 지점에 도달했고, ‘아니스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김효선 작가는 뮤지컬 〈바울과 나〉가 지금까지 집필했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뮤지컬 〈바울과 나〉 초고를 쓰고 이석준 연출과 만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1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픽션(fiction)과 논픽션(non-fiction)의 간격을 조율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 바울의 생애에 가상의 인물을 넣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회심 과정이 성경에서는 몇 줄의 설명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짧은 시간의



뮤지컬 〈바울과 나〉의 김효선 작가(오른쪽), 뮤지컬 〈바울과 나〉 스틸컷(왼쪽).

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13여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自服)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날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회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집필했습니다.”

김효선 작가는 뮤지컬 〈바울과 나〉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극 중에서 아니스타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26장 1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저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나〉는 용서와 화해를 다룬 이야기이지만, 관통하는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스타와 바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뮤지컬 〈바울과 나〉 마지막에 ‘에게이로이’라는 합창이 나옵니다. 에게이로이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이

합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섭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에서 기독교 문화 리더로

뮤지컬 〈바울과 나〉와 김효선 작가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했다. 아나나 다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다.

“뮤지컬 〈바울과 나〉 공연이 무대에 오른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돕는 손길과 하나님 은혜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확장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뮤지컬 〈바울과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류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뮤지컬 〈바울과 나〉와 저도 해외 진출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하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대면전도 한계 극복하는 ‘디지털 선교’

‘온누리가 함께하는 참여형 디지털 선교’ 제안



전영수 장로
(세계디지털선교협의회
(SWIM) 의장)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에서 ‘디지털 선교’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 25개 협업과제(GAP) 중에서 디지털 선교 관련이 6개였고, 선택강의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선교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디지털 협업을 모색하는 데 열심이였다. 지난 5년 중동지역 디지털 선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대면전도가 힘든 이 지역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 광고 전도를 시도한 디지털전도팀이 전도대상자의 영접, 성경책 수신 요청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디지털 선교가 대면전도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선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어떻게 하면 디지털 선교를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며, 청년들과 성도들, 선교사와 선교사 지망생 등이 참여하는 ‘온누리가 함께하는 참여형 디지털 선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동지역 디지털 선교 현황

중동지역에서 아프간A전도팀은 작년 한해 247만 명에게 소셜미디어 광고를 해서 반응자 5만 명을 얻었고, 그 중에서 46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같은 해 아랍B전도팀은 240만 명에게 광고해서 반응자 4만 5천 명을 얻었고, 그중에서 42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중동지역에서 사역하는 디지털전도팀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간증한다.

첫째, 디지털 선교는 성령님이 하신다. 온누리교회 디지털전도팀 박준손 선교사는 디지털 선교가 잘 될까 의심했다고 한다. 대면전도를 할 때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전도해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데, 디지털 선교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전도하므로 열매 맺기가 더 어려울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비(非)관계 디지털 선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다고 신청하는 것을 보고 박 선교사는 디지털 선교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디지털 복음 광고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선교사나 위성 복음방송, 기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봤고, 마음이 열린 상태로 복음 광고에 반응한 것이다.

셋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는 연간 수백만 명에게 복음 광고를 도달시킬 수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3개 전

도팀이 각각 연간 200만 명 이상에게 광고를 도달시켰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광고하니 반응자도, 영접자도 많다. 소요된 광고비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연간 7천~1만 불 정도다.

온누리교회 디지털 전도 추진 방향

온누리교회가 중동의 디지털선교팀처럼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려면 첫째, ‘온누리디지털전도팀’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교회는 올해 1월부터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사역자들로 구성된 디지털전도팀을 구성해서 디지털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9만 명에게 광고를 도달시켰고, 그중에서 1천1백 명이 반응했으며, 1차 전도에서 8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온누리디지털전도팀은 다른 팀들과 달리 SWIM(세계디지털선교협의회)이 개발한 ‘성경묵상 케어 기반의 지속 디지털 전도 모델’도

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아주 짧아야 하고, 영상 콘텐츠도 한순간에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가장 적합한 형태가 숏폼 영상이다.

노출 복음 광고는 당장 전도 열매를 목표로 하기보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지난 5월 26일 설교에서 말씀하신 ‘선행은총’(회심 이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 불신자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얼핏 본 복음메시지가 무의식에 학습되면 나중에 성령님이 학습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노출 복음 광고를 통해서 디지털전도팀들이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여형 디지털 전도는 ‘선순환하는 디지털 선교’다
디지털 선교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선교사들의 열정이 선순환하는 선교가 될 것이다.
청년들과 성도들, 선교사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참여형 디지털선교 제안

온누리교회가 디지털 선교를 잘 추진하는 방법으로 ‘참여형 디지털 선교’를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중보기도 참여다. 디지털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불신자들을 Impression 복음 광고에 반응하게 하시고,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온누리 ‘KUDE 디지털전도팀’이 지난 4월 전도하기 전에 후방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돼 한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었다. 성령님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중보기도팀’이다. 디지털 중보기도팀에게는 성령님께서 개종자나 난민들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간증), 성령님께서 디지털선교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제공될 것이다. 이 디지털 선교 중보기도팀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둘째, 광고 영상 제작 참여다. 디지털선교에 열정과 달란트가 있는 다양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 노출 복음 광고는 숏폼 형태로 15초 내외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다. 숏폼영상

은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그들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지 전도대상자 청년들도 숏폼 콘텐츠를 좋아한다. 디지털 세대의 같은 눈높이로 한국 청년들이 광고 영상을 만든다면 선교지 청년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다. 기독 OTT 풍당 미디어스쿨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이 좋은 품질의 숏폼 광고 영상 제작에 참여한다면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복음 광고 영상 제작을 하려면 기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영상제작자가 선교지 영혼 간증이나 선교 활동 등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성령님의 감동은 디지털중보기도팀에 참여하면 받기 쉬울 것이다.

셋째, 선교사의 디지털전도팀 참여다. 현재 SWIM이 섬기는 온누리 디지털전도팀은 1개이고, 나머지는 비(非)온누리교회 협력 전도팀이다. 온누리교회가 열방에서 디지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디지털전도팀이 있어야 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주요 언어권별로 최소한 한 팀 정도 디지털전도팀이 필요하다. 흔히 디지털 선교를 하는데 IT 기술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디지털 선교를 잘하려면 현지인의 영성 심리를 잘 알고 있고, 전도 열정이 높으면 된다. 디지털 선교를 위한 기술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짧은 시간 습득이 가능하다. 복잡한 기술은 SWIM이 처리하고 있어서 선교사의 기술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지인을 잘 알고 있고, 전도 열정이 높은 선교사 혹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디지털 선교에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참여형 디지털 전도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선순환하는 디지털 선교’가 그것이다. 우선 청년이 제작한 숏폼 광고 영상에 현지 영혼이 반응하고, 그 영혼을 디지털전도팀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도한다. 그 이후 영접자 명단을 후방에 보내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영접 보류자에게는 QT 케어를 한 다음 2차 전도를 한다. 2차 전도대상자 명단을 후방에 보내 기도를 요청하고, 후방기도팀은 전도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 성령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2차 영접자가 나오고, 이 소식을 들은 후방의 기도팀은 환호하며 함께 웃고, 기대하던 열매가 없을 때는 함께 울면 된다. 광고 전도는 때마다 반복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된다면 디지털 선교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전방과 후방의 열정이 선순환하는 선교가 될 것이다. 이 즐거움에 더 많은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선교사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디지털 선교는 이 시대에 적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교가 될 것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 4:1~11)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다. 첫째,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셋째,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이 시험들을 살펴보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하나님을 잊으라’는 유혹이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배가 고프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유혹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신 말씀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귀의 전략은 눈앞에 있는 배고픔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 도우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라’는 유혹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라고 유혹한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는 맛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신다. 맛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유혹, 시험, 다툼이라는 뜻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의심한 것을 반영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원망했다.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함이 사라지고 눈 앞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안 계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셋째,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가지라’는 유혹이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사탄의 초점은 ‘모든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다 받아라’에 있다. 예수님은 이때도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신 6:13)는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뀐다면 완전한 우상이 된다.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을 모두 네가 취하라! 그 영광을 모두 다 받으라!”고 유혹한 것이다.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신 6:12~13).

이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의미다. 이 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

고, 다른 우상과 신을 네 앞에 두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것이 제1계명이며,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 좋은 환경과 물질, 권력과 명예는 쉽고 빠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초대 왕 사울이 왕권에 취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었을 때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거두셨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할 정도로 왕권이 즉시 중단되지 않았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세 가지 시험과 그 대응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행동 지침이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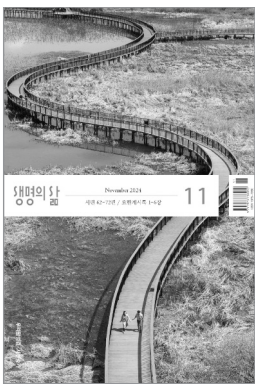


신동식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어린양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11월 25일~12월 1일
<요한계시록> 3:14~7:8



는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묵상하자.

▶주님은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말하지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한다. 이기는 사람은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 이후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또 장엄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는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묵상포인트 2: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언

묵상포인트 1: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사도 요한은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임을 선포한다.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모습, 고난당하는 교회(성도)를 돌보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묵상하자.

급할 때 ‘어린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죽임당하신 어린양은 모든 원수를 멸망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강력한 권세자다. 믿음을 지킨 성도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양을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을 묵상하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실 이는 ‘어린양’ 뿐이다.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거문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죽임당하신 어린양을 높여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리라고 외친다.

묵상포인트 3: 어린양이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자 심판이 진행된다. 어린양이 심판자시기에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재림의 날, 곧 진노의 그 날에 하나님 보좌앞에서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준비할지 묵상하자.

▶어린양이 차례로 인을 떼시니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온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자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로부터 가려 지기를 바란다. 어린양이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외친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모두 144,000이다. 이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방인을 포함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며 힘쓰자.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 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고난받는 나를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자. ▶죽임당하신 어린양은 인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양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과 어린양이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심판 날이 내게 위로와 승리의 날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으로 인해 일을 쉬고 계십니다. 그 병이 아버지의 육체와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기도해주시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혼의 치유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주시지요.

오빠에게는 그동안 여러 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교회와 믿음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빠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빠가 지금은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오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제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저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서 강하게 일하셔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기도해주시지요.

/ 익명의 성도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자녀관을 형성해야 한다. 자녀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뒤죽박죽되기 때문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통로’라는 의미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를 내 육신의 자녀로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보느냐에 따라 자녀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자녀관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자녀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미술이나 음악 등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켰더니 얼마 안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그때 부모가 자녀를 인내심이 없다며 다그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인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재

둘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와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 부모를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은 큰 그릇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가 가정에서 느낀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많은

녀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스며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자녀관을 가지면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자녀만 생각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도록 도움이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도하도록 돕는 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이다.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자녀관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

능을 발견하도록 계속 장(場)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자녀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각자의 색깔대로 살도록, 그것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

셋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지를 알게 해야 한다.

삶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고난과 풍파가 있다. 그때 무릎 꿇는 만큼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자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갈등을 넘어 수용과 회복으로!

연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서로 다른 성격과 사고방식 충돌, 의사소통에서 오는 갈등, 배우자 원가족과의 마찰, 성장 배경에서 오는 갈등, 성격적 부적응, 맞벌이와 역할 분담에서 오는 갈등 등이다. 신혼부부는 서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깊이 탐색한다. 결혼 전에 예상했던 것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다. 예비 결혼 단계는 지도를 펼쳐놓고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곳을 미리 확인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막상 여행을 시작하면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신혼부부 갈등으로 드러난다.

신혼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방식 등에 우선 적응해야 한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성격과 생활방식, 생각이 같은 사람은 없다. 형제라도 다른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다.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부는 정말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한다. 넉넉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들도 발견한다.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이도 발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꿀 수 없는 배우자의 독특한 특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시

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점은 서로 다른 점들이 돌출되면 부부가 긴장하고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혼부부에게 의사소통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다. 서로 다른 성격과 사고방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이 잘돼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막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답답해진 가슴을 치는 부부도 있다. 신혼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 관계의 터를 새롭게 쌓는 단계라고

인 부담을 주는 원가족,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원가족 구성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배우자를 끌어들이는 원가족의 부정적 영향력 등은 신혼부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원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신혼부부는 결혼은 자신들뿐 아니라 양가 가족이 심리 정서적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서로 원가족의 영향력에 경계선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면 문제 될 게 없을 것이

는 매너도 갖출 필요가 있다. 가장 강렬하고 즐거운 성적 관계가 되도록 부부가 세심하게 그리고 더 민감하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거절과 승낙’이라는 위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부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역할 분담과 실행에서 원망과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대화할 필요가 있다. 말은 역할이 공평하지 않거나 가사의 짐을 오롯이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짜증이 쌓일 수밖에 없다. 서로가 인식하는 가사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 한다.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함께 지고 가는 섬김이 필요하다.

신혼기에는 많은 영역에서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충돌과 갈등 지점에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갈등을 넘어 수용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신혼기에는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충돌과 갈등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잘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너지 의사소통의 터를 다시 쌓고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예의 바르게 표현하고,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서로 깊은 소통 경험을 쌓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소통해야 할 수많은 주제가 부부에게 생긴다. 결혼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도 있다. 양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가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라면 그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늘 재정적

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원가족의 압력이라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견고한 담을 쌓을 필요가 있다.

성적 관계도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가장 민감하고, 서로의 깊은 내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도 주지만, 가장 깊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친절함과 따뜻함’이라는 가이드와 함께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대화와 배려’라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지식 쌓기에도 열심을 내야 한다. ‘친절한 거절’이라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국의 기독교문화 유산'

순교 위에 세워진 '장흥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교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11월 끝자락에 닿으니 겨울이 실감 나는 듯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나. 강원도 철원은 겨울 추위보다 매서운 고난의 땅이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 한국전쟁 중에 그 어느 곳보다 고난이 심했다. 철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흥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와 같은 공간에서 먼저 살았던 신앙 선배들이 겪었던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두렵고 부끄럽다.

철원 장흥교회는 놀라운 순교자를 품고 있다.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다. 매서운 죽음의 공포가 연속되었음에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담대한 사람들의 신앙 열전이 거기에 있다.

철원의 대표적 관광지 고석정부터 북쪽으로 철원평야가 이어진다. 고석정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평야 가운데 작은 동산이 보이고, 그 아래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을 '장방산'이라고 부른다. 그곳에 장흥교회가 있다.

장흥교회는 1920년 설립되었다. 하나님을 영접한 고봉기가 이웃의 멸시를 받아 가며 교회를 세웠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 이웃의 멸시가 긍정으로 바뀌었다.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에 한 줄기 희망을 전하며 조금씩 성장했다. 1923년에는 '영생학교'를 세워 근대화된 초등교육을 실시했다. 1926년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던 신석구 목사가 부임해서 성도들을 양육했다. 신석구 목사의 가르침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1940년, 박경룡 목사가 부임했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일제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박 목사가 부임하고 기도회 불을 붙였다. 가시밭길을 걸어도 견디고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도터를 세우기로 했다. 그의 기도와 계획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었다. 일본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성해 장로가 기도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을 준비해 주었다. 유재현 목사는 기도원 원장으로 부임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배출해 내는 역할을 했다. 현재 철원읍 갈말 순담계곡에 있는 대한수도원이 그 곳이다. 이 기도원은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으로 설립 이후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다.

1945년 해방이 되었다. 그토록 원하던 해방이었건만 38도선 이북은 또 다른 흑한이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을 장악한 공산당의 탄압이었다. 철원지역은 38도선 이북이라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했다. 1945년 이후 한 반도는 해방정국으로 혼란스러웠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고,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며 극도의 혼란을 보여주었다. 누구도 분단이 길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비록

북한에 속했고 공산당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일거에 해소될 거라 여겼다. 당시 남한은 38선이 곧 없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이시영 부통령 직속 '38선 이북관리국'을 두었다. 그리고 북한 각 지역에 책임자를 비밀리에 임명하거나 파견했다.

이 무렵 김윤옥 목사가 철원을 철원제일교회로 부임했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김병조 목사의 아들이었다. 김병조 목사는 이승만, 이시영과 친분이 있었다. 이시영 부통령이 김윤옥 목사를 강원도 반공 책임자 신분으로 38도선 이북으로 파견했다. 나라가 하나로 통할될 때 남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이북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무렵 대한수도원 유재현 목사는 무신론(無神論)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적통과 사탄으로 규정했다. 공산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유재현 목사의 선교는 철원에서 일어난 반공정신 바탕이었고, 1946년 결성된 신한청년회 토대가 되었다.

김윤옥 목사는 철원제일교회로 부임해서 성도들에게 반공사상을 주입하고, 남한 정부를 지지하도록 독려했다. 대한수도원 유재현 목사 후임으로 활동하던 전진 전도사도 이에 부응해서 비밀활동을 함께 했다. 김윤옥 목사는 장흥교회 장로 박성배와 함께 철원 기독교 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1946년 3월 '신한청년회'를 결성했다. 장흥교회 장로 박성배와 정국환이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았다. 총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철원 동송, 갈말 지역에 거주하는 장흥교

회 성도들이었다. 점조직을 확대해가며 비밀리에 반공을 전개했는데 발각되고 말았다.

1946년 8월 25일 새벽 5시 철원군 내무서원을 중심으로 장흥1리를 포위하고 가택수색에 나섰다. 마침 철원제일교회에서 지방사경회가 열리고 있었고, 마지막 새벽기도를 드리는 중이었다. 기도회가 끝나자 공산당은 김윤옥 목사, 장흥교회 박경룡 목사, 이해성 집사, 박성배 장로를 포함한 청년 30여 명을 포함해 도합 40여 명을 묶어 연행했다. 박경룡 목사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 풀려났고, 철원을 떠나게 되었다. 그밖에 옥사 7명, 도피 중 사살 2명, 피랍 2명이 있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월남했다. 당시 상황을 이주성 성도가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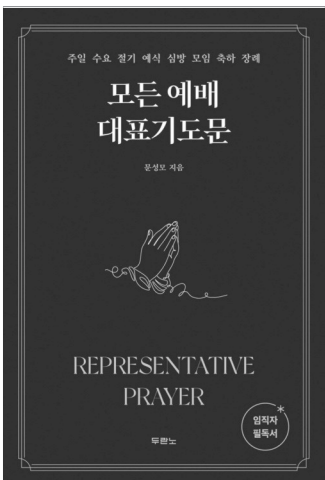
"그것이 탄로가 나서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38선 이북 지역이었고, 공산당들의 지배 아래 교회로서는 늘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흥교회는 반동분자 소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접수해서 십자가를 떼고 공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교인들은 마루에 앉고 퇴방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내 평생에 또 있을까 하고 반문하곤 합니다. 장흥교회 교인들, 특히 직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단원으로 활동을 했으니 노동당을 표방하는 빨갱이들에게는 반동분자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속〉

신간 소개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잘하고 싶은 '대표기도'



〈모든 예배 대표기도문〉
문성모 저 | 두란노 | 26,000원

이 책의 안내를 따라 대표기도를 훈련하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거룩한 예배로 이끄는 대표기도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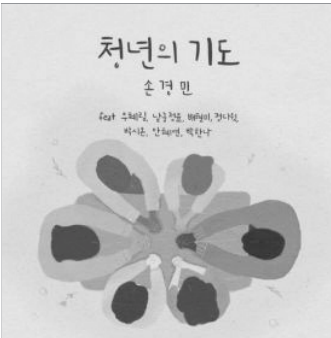
교회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순장의 눈을 피하는 순간, '제발 나는 아니길' 바라는 순간이 대표기도할 때 아닐까?

긴장되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잘하고 싶은 '대표기도'를 훈련하는 책이 있다. <모든 예배 대표기도문>이다.

이 책에는 주일예배, 주중에 배, 순예배, 절기, 예식, 심방, 모임, 축하, 장례 등 대표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도문은 주기기도문 형식을 존중해서 구성했다.

이 책의 안내를 따라 대표기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청년의 기도'
손경민 목사 곡

전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하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이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추천한다.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청년 시절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동시에 고민도 많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청년의 기도'는 바로 그 청년들을 위한 찬양이다. 작곡가 겸 예배인도자 손경민 목사가 청년 시절 드렸던 기도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내용을 작사, 작곡했다. 모든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겨울철 탄소중립 생활실천!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추울수록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 멀어질 위험이 있다.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겨울철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난방 온도 낮추기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20도다. 적정 온도에 맞춰 난방기구를 가동하면 가구당 연 166.8kg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보일러 배관 청소하기다. 보일러 배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면 가스요금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보일러 배관에서 이물질 제거했을 때 난방비가 10%나 절감된다고 한다.

셋째, 꼼꼼하게 단열하기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최상층 기준으로 창문을 통한 연손실 비율이 30%나 된다. 문풍지, 에어캡, 방풍비닐, 틈막이, 단열벽지 등 바람막이 제품으로 창틀이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결혼문화 세미나 ‘LOVE DIVE’

11월 30일 오후 4시 양재 사랑홀

결혼문화 세미나 ‘LOVE DIVE’가 오는 12월 7일(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대학로 이룸 3층에서 열린다. 20대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하단 QR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저녁식사 포함).

‘LOVE DIVE’는 청년들이 크리스천 결혼문화를 이해하고, 알찬 강의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과 연애를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LOVE DIVE’에서는 ‘Joyful christmas festival’을 주제로 CCM 가수 정은미가 공연과 캐럴 싱어송을 한다.

문의: 010-9090-6746 (문자)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김사랑 권사에게 ‘명예 파트너패’ 증정

온누리복지재단 ‘온소미(溫笑美)’ 장학사업 후원

온누리복지재단이 ‘온소미(溫笑美)’ 장학사업에 거액을 후원한 김사랑 권사(가명)에게 지난 11월 19일(화) ‘명예 파트너(Honorary Partner)패’를 증정했다. 명예 파트너 증정식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는 “이 후원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소미(溫笑美)’ 장학사업은 불우한 청소년, 탈북민,



온누리복지재단
온소미 장학사업에
동참해주세요!

다문화 가정, 선교사 자녀와 신학생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5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후원 문의: 02-3215-3413

하나원사역팀, 하나원 동창회 개최

11월 30일 오후 6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강당

사회선교본부 하나원사역팀이 한누리팀, 전도사역본부와 함께 하나원(북한일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동창회를 개최한다. 11월 30일(토) 오후 6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강당에서 ‘The 만남’을 주제로 열린다. 하나원 동창회는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탈

북민들을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는 자리다.

참가신청은 하단 QR코드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름, 성별, 전화번호, 신앙적 궁금증 등을 기록하면 된다.

문의: 02-3463-9686



양재 이웃사랑팀, ‘러브미’ 봉사자 모집

매월 마지막 주 성미(聖米)와 헌옷 수거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러브미’ 봉사자를 모집한다.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사랑의 쌀 섬김 주일’로 정하고, 성도들이 후원한 성미(聖米)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하고 있다.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은 성미 수거 및 전달 외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온 재활용 가능한 헌옷을 매월 마지막 주 서빙고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 전달해서 모은 재원으로 쌀을 구매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의: 010-3343-4842

‘찾아가는 하트스쿨’

11월 16~17일 평택온누리교회

하트스쿨이 지난 16일(토)과 17일(일) ‘찾아가는 하트스쿨’을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진행했다. 평택온누리교회 부모와 자녀 110여 명(44 가정), 스태프와 자녀 47명이 참가했다.

찾아가는 하트스쿨에서는 ‘달란트 발견과 소통’을 주제로 이동우 교수

(한동대), ‘내 아이와의 대화법’을 주제로 이유정 박사 등이 강의했다. 레크리에이션, 예배 등도 이어졌다.

이호찬 팀장(하트스쿨)은 “부모들과 자녀들 모두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양재 Why Mission 본부 103기 수료식

50여 명 수료 ... “하나님 나라 수놓는 선교사가 되길”

양재 Why Mission(이하 와이미션) 본부 103기 수료식이 지난 11월 16일(토)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있었다. 성도 50여 명이 수료했다. 수료자 김용산 목사는 “와이미션은 선교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했다”면서 “와이미션 수료

생들이 일상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수놓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수료자 양선호 성도(경기A공동체)는 “내년에 해외 연수를 준비 중인데 와이미션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12월 1일(일)까지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해 보고, 그 내용을 독후감으로 쓰면 된다. 독후감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

소년센터 3층 도서관)에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바울과 나> 감상문 대회도 12월 10일(화)까지 이어진다. 공연을 관람한 다음 A4 한 장 분량의 감상문을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작성해서 이메일(wisdom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당선작은 12월 15일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당선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국무조정실 주관 ‘개발협력주간 행사’ 참가

NGO 더멋진세상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4년 개발협력주간 행사’에 참가했다. 개발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개발협력의 날(11월 25일)을 기념해 2010년부터 매년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여는 행사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개발협력력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했다. 11월 25일(월) 개발협력의 날에는 박세업 선교사가 ‘국민포장(國民褒章)’을 수상한다.

/ 홍하영 기자

들리지 않는 이야기

11월 24일까지 ‘대전 국제사진축제’

11월 24일(일)까지 열리는 ‘대전 국제사진축제 특별전’에 신진호 집사(김포공동체, 창조과학회 이사, NGO 타이니씨드 사무국장)가 참여한다. 신진호 집사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주제로 미안마 내전 피해자들의 사진 19점을 전시한다. 사진전 수익금 전액 미안마 내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대전 국제사진축제는 대전예술가

의집, 대전엑스포시민광장 등 11개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신진호 집사의 작품은 문화공간 주차(대전 중구 대흥로157번길 40-1)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신진호 집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쟁 피해자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분노와 원망, 고통과 그리움이 사랑으로 바뀌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 세례자

■서빙고
선여심 760305
성시문 940307
윤예찬 981122
조이준 971208
최윤부 420823
한상요 501024

입교
백은실 880506
유아
송하은 221119
송영민 노유진
박수아 210615
박상훈 강수경
신이현 230411
신순호 김명민
이태성 220816
이규환 김민정
이태양 220816
이규환 김민정
이하랑 231117
이윤기 윤혜림
이하울 231117
이윤기 윤혜림

입교
윤승은 991130
유아
김하진 230208
김종완 김예연
나도하 240321
나용운 최동주
문 솔 201218
문현제 김다인
문 별 230319
문현제 김다인
배기쁨 230524
배성국 김미경
이래나 240604
이기쁨 남지현
이은서 230605
이광형 최연수
이지안 210122
이성수 정제니
이 은 220622
이성수 정제니
최선우 230619
최원재 박소연
홍지우 231010
홍정기 김지원

■양재
윤여철 820117
이원영 940312
임진희 880124
정필윤 431103
조재희 960722
진옥미 810204

〈대학청년〉
■허브
윤희재 020322
입교
이강우 960930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11월 24일 오후 5시 서빙고 시온홀

가정사역 동대문중앙 성동광진 이수
김성연 김의철 김혜영 박정란
민아래 김태규 임왕수
송은탁 이혜인 전지윤
한병성 장한나 전창석

강서 동작 성북
고현근 박한영 김은희
서은혜 어영선 박성근
이우석 이찬규 양정현
장재희 한은숙 황 준

고양은평 마포
구현보 김미진 김홍량
염종권 문지은 김수진
이연경 박재현 안미레
최주현 손원숙 이종현

관악금천 양천
김영한 정성문 이지영
윤권희 황상희
이소영 이미애
정미리 정성문
최동주 황상희

북누리
이재욱 김하경
장현숙 임희숙
영동구로
이윤정 김시은
장보화 김태우
최철철 채옥석

서대문
김도숙 최희자

노원
유화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소감



/ 김영순 집사(평택온누리교회)

다시 신혼의 기분으로!

우리 부부는 큰 문제가 있거나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서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희생하면 썩 괜찮은 부부이자 부모가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는 선이 모호하고, 서로 자신이 더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과 다른 관념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었다. 서로를 공감할 수 없어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도 이어졌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를 신청했다. 남편과 몇 번이나 하가훈을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싸우면서 실망했다. ‘나를 위해 조금의 시간과 돈 투자도 아까워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복이 고 나발이고 비뚤어질 테니 두고 보라는 격한 마음도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하가훈에 참가했다. 그리고 ‘피플퍼즐’ 강의에서 남편이 어떤 유형의 사람 인지를 알고 그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지적인 것을 회개했다. 남편도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음을 알고 서로 눈물흘리며 안아주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박경숙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

죄송하고, 감사했다!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인도에서 보낸 첫 밤이 기억난다. 말라(Mala:금잔화로 만든 화환)를 하나씩 목에 걸어주는 인도인들과 반가운 L선교사님의 환영으로 낯선 곳에서 느낀 긴장감이 녹아버렸다. 다음날에는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모스크교, 개신교 등이 모여있는 찬드니쵸크 종교의 거리를 탐방했다. 수많은 신을 믿는 인도인들을 바라보며 “오직 진리인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오후에는 TIM(두란노국제선교회)이 개최하고,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한 힌두인 교회를 방문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역 중인 현지인 사역자와 성도들,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다. 그 교회를 위해 흘렸을 선교사님의 눈물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현지인 사역자가 카스트 제도 중에서 최고 계급인 브라만 출신인데, 16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10년 동안 모든 가족을 전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크게

감동했다. 타지마할과 아그라포트 등 인류 문명이 이룩한 경이로운 건축물을 탐방했다. 저절로 탄성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사용했으면 더욱 값진 문명이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컴퓨터학원도 방문했다. 무슬림 거주 공동체에 있는 학원에서 사역 현황을 듣고, 여성 팀원들이 직접 여성 사역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이날 예배에 엄마들과 자녀들이 많이 참석했다. 공동체 목사님이 여인들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데 많은 여성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그곳에 가장 시급한 컴퓨터 3대도 기증하고, 아웃리치 팀장 도전복 집사님은 교사들에게 영상 제작 기법을 강의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선교사님의 끝없는 수고와 진정한 헌신을 엿봤다. 정말 외로웠을 그 긴 시간을 굳건히 견뎌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다. 팀원들의 헌신과 기도로 인도 아웃리치가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부부 큐티 스쿨 수료 간증



/ 김성환, 김명희 부부(가정사역공동체)

부부 큐티의 유익과 기쁨

우리 부부는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개설되는 ‘부부 큐티 스쿨’에 기대와 설렘을 안고 참여했다. 부부 큐티 스쿨은 담당 목사님의 강의와 부부 큐티의 실제 모델과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매주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첫째 주에는 ‘부부 큐티의 정의, 핵심, 목적, 모델’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영적 연합과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 부부 큐티의 새로운 경지를 깨달았다.

둘째 주에는 ‘부부 큐티의 결단과 순서와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했다. 부부가 함께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큐티 나눔의 결단과 체계적인 큐티로 영적 성장, 영적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부 큐티를 통해 부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순 식구들에게 “부부 큐티를 하는 순이 되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했고, 모두 동의할 얻었다.

셋째 주에는 ‘부부 큐티 나눔, 주의사항, 잘하는 비결’을 학습하면서 나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웠다. 건전한 나눔이란 같은 성경 본문을 놓

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부부간에 합일점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부부 큐티의 진수임을 깨달았다.

넷째 주에는 부부 큐티’를 오랫동안 실천해오던 목사님 가정에 모여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조찬을 함께했다. 부부 큐티의 모델과 유익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가족 공동체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부부 큐티를 접했다. 서로 영육이 하나 되지 못한 데 따른 부부 그리고 가정의 갈등과 문제들의 원인을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였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가 영적,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았다. 더 나아가 부부 큐티를 통해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부부가 영육이 하나 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진리 안에서 소통하고, 가정예배가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부부는 부부 큐티 가정으로서의 약속과 함께 부부 큐티 스쿨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열린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박믿음 성도(가명)

여섯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

2012년 결혼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여섯 아이를 출산했다. 나는 매사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꿈을 갖고 귀농한 농촌 마을에서 여러 일을 겪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결국 지난해 2월 다시 서울로 왔다. 서울로 돌아온 8개월 동안 집 밖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어쩌다 용기 내서 나간 날에는 걷다가 다리가 풀리거나 머리가 하얘지는 일들이 빈번했다. 어떤 일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계속됐다. 나의 병 치료를 위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5개월 동안 다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오죽하면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이혼을 언급하실 정도였다. 하루하루 메말라가던 어느 날 우연히 본 현수막에서 ‘맘클래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열린어머니학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상한 나의 감정과 마주했다. 열린어머니학교에서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위로하며 남편에게 쓰는 편지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다. ‘네가 사랑

스러운 20가지 이유’에 남편이 싫은 20가지 이유를 정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참아온 시간을 역올해하고,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나는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남편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바른 정립과 그에 맞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나의 어려움만 커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를 돌아본 것처럼, 남편의 시간과 언어를 돌아보며 여섯 아이의 아빠로서의 무거움을 생각하고 있다. 열린어머니학교는 앞만 보고 뛰어왔던 내 인생을 재점검하고 방향을 다시 정하는 계기였다. 남편과는 서로 예민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있다.

나는 압박감에서 씨름하던 아픔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천사 같은 여섯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워보려고 한다. 언젠가 나 같은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날을 꿈꾼다.

장로칼럼

선한 영향력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IT 회사에 다닐 때 일이다. IT 복합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관리실에서 나이가 드신 직원이 뛰어나와 나에게 경례하는 것을 보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이 “나는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는데 경례는커녕 아는 체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머리가 하어서 아마 회장쯤으로 알고 있나 봅니다”라고 얼버무렸다.

출장이 잦은 나는 돌아올 때면 고속도로 마지막 휴게소에 들러 온기가 남아있는 5천 원 짜리 호두과자 한 봉지 건네주고 들어오고, 더운 여름 퇴근할 때면 시원한 음료 한 병 놓고 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원분이 경례만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장로님!”이라고 인사를 했다. 아마 직원들에게 내 신상을 물어본 것 같다.

외부 사역을 하는 청담동 높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기계식이다. 주차가 서투른 나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 아래층이 훤히 보이는 승승 구멍 뚫린 바닥을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것이 참 싫었다. 그곳에는 세 분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우리 회장이 돈독이 올라서 고물 에어컨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며 지하 자동차에서 내뿜는 열기와 매연 속에서 선풍기 한 대로 땀을 식혔다. 그분들이 안 돼서 들어오기 전 건물 옆 편의점에서 만 원어치 사면 한 보따리 되는 빙과류를 건네주곤 했다. 겨울철에는 손을 댈 것 같은 따스한 호빵 봉지를 건넸다. 어느 날 그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한 분이 뛰어오시더니 “차 놔두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퇴근하실 때는 미리 전화해 주세요!”라고 하셨다. 입출차에 서툰 방문객이 대신 요청하

더라도 혹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방문객 차를 못 만지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근 때는 비좁은 통로 한쪽에 시원하게 에어컨까지 켜놓은 차를 타고 다녔다. 외부 사역을 내려놓고 몇 년 뒤, 그 세 분 중 연세가 많으신 직원을 양재 환승주차장에서 만났다. 뒤에 출차 줄이 늘어서 있는데도 그분은 반갑다며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장로님 때문에 저도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선한 영향력! 나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큰 것이 무엇이겠는가? 전에 중등부 교사로 섬길 때 우리 반 윤현상 군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너를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며 교회에 나오셨다. 반면 믿지 않는 남동생과 같이 길을 걷다가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남동생도 그분을 알아서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사업상 가끔 만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말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전부를 비추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이 머물렀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남아 있다. 그렇잖으면 세상 사람이 앉았던 자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다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 그 향기가 편지가 되어 한 영혼의 가슴을 휘돌아 나갈 수도 있다.

“향을 쫓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다. 꿀벌은 꽃의 향기를 찾아 날아들지만, 악취는 모이는 꿀벌을 쫓아낸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곧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 향기를 흘날리는 사람도 있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다.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 몰려드는 나인가 아니면 곁에 왔다가 코를 싸매고 달아나게 하는 나인가? 내 몸의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아보지 않겠는가?

권사칼럼

구원

김명희 권사
(서산온누리교회)

장막과 피상의 세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눈물로 기다리던 시간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적셔줄 때
죄와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악한 것과 구별되어졌도다

할렐루야
나의 심령이 씻기음 받던 날
당신께 감사하며 통곡하던 그 날
나는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던 날
세상의 악한 것이 나를 침범하지
않기를 소원하던 그 날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죄사함을 감사하며 춤추던 날
나에겐 새 생명이 태어났고
새 날을 맞았습니다

불쌍한 이들이여
함께 구원에 동참하여
나와 함께 구별되자
천국 계단을 밟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낙원으로 함께 가자
허망한 세상이 싫어 떠난
천국 여행자의 모습으로 살자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을 떠난 천국 여행자의 것이로다

신앙에세이

김승경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차세대)

지난해 여름 즈음부터 매일 꼭 하려고 애쓰는 일이 하나 있다. 팔굽혀펴기다. 원래는 집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었다. 그런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회원권이 명을 다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팔굽혀펴기를 떠올리게 됐다.

팔굽혀펴기는 사실 대단하게 여겨지는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별 운동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팔굽혀펴기도 ‘매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 1년 동안 정말 불가피한 날을 제외

하고는 매일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시간이 쌓이면서 명백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체력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예전과 다르게 몸이 가벼워진 게 명확하게 느껴지고, 일상생활에 활기가 돌아왔다. 아내는 내 안색이 정말 좋아졌다고 기뻐했다. 예전에는 피곤할 때 얼굴이 퉁색으로 변했는데, 요즘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다. 아직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스몰 스텝’은 말 그대로 매일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다.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쓴 박요철 작가는 ‘나 자신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 간단한 실천들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루 3줄 글 쓰기, 하루에 영어단어 5개씩 외우기 등 평범한 실천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천들이 3년 정도 이어지면서 작지 않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스몰 스텝!

‘스몰 스텝’은 운동이나 일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육체와 일상을 위한 스몰 스텝도 유익하지만, 경건을 위한 ‘홀리 스몰 스텝’이 더 크고 영원한 유익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동참하는 홀리 스몰 스텝은 단연 QT일 것이다. 비록 짧은 분량의 말씀이라도 그 목상을 매일매일 지속한다면 영적 파급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또 다른 홀리 스몰 스텝은 무엇일까? 하루 10분 기도하기, 하루 한 명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기 등 다양한 걸음이 있을 것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매월 말씀 한 구절을 정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 식빵, 말씀 띠부띠부씰, 말씀송을 만들어 온누리교

회 모든 캠퍼스에 배포한다. 그러면 모든 캠퍼스 차세대 자녀들이 한 달 동안 주어진 말씀을 눈길이 닿는 곳에 두고 암송하고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긴다. 몇 개월이 지나도 그 말씀이 설교 중에 나오면 말씀송을 흥얼거리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작은 것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다. 스몰 스텝을 내딛기가 정말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광고 문구처럼 JUST DO IT (그냥 하라)의 마음으로 무엇이 됐든 ‘딱 하나만’ 해볼 것을 추천한다. 팔굽혀펴기를 한 번만 하든, 말씀을 한 절만 읽든 말이다. 그러면 어느새 그날의 스몰 스텝을 모두 내딛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당신만의 스몰 스텝을 내딛기를 바란다. 어느 날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빅 스텝’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홀리 빅 스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해서 다락방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 확인: 선교사와 소통하여 주소를 확인합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3) 편지 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안지역 예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회사 000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흘리는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것을 믿으며, 손을 모으는 마음으로 작지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 연락처, 이메일을 기록해서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 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송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서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의 대상은 고3 및 12학년(2006년

이후 출생)까지입니다.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문구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완구, 옷,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과자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서적,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하기 바랍니다(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안지역에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하기 바랍니다.
* 보안용어 안내: 선교사님→선생님, 기도→손모음(노래), 하나님(예수님)→윗분(○수님), 교회→회사, 공동체→부서, 사역→업무 등
- 2) 보안지역 안내
 - ① 공산권: 중국, 베트남
 - ② 이슬람권: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서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 ③ 힌두교권: 인도
 - ④ 불교권: 미얀마, 라오스
 - ⑤ 각 공동체에서는 선교사님과 소통해서 선교지 주소로 선물을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이정은 간사 02-3215-3208, ov2000@gmail.com

5. 우체국 요금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나 대표전화 1588-1300(발신자 부담)으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국제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31-336-1042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21-2	02-796-9700
NGO 더멋진세상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정금빌딩) 6층	02-2271-2246
바울선교회	(54308)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4길 30	063-254-8418
빌리온선교회	(087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층	02-879-1191
알타이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선교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703호	031-424-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한성교회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모퉁이돌선교회	(0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02-796-8846
FMnC선교회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5 양재빌딩 2층	02-848-6251
GBT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3	02-2653-4270
GMP개혁선교회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길 25	02-337-7191
GMTC선교회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8 한국선교회훈련원	02-2649-3197, 070-4066-0114
GO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선교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	070-4006-5300
Inter-Cp선교회	(04386)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선교회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31-778-7931
OM선교회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031-698-2372
OMF선교회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SEED선교회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	(072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영등포동2가) 조광빌딩 301호	02-815-4052~4
한국WEC국제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 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5층	02-322-0561,3
온누리M미션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031-491-9650
CCC	(03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2-8	02-397-6200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올해도 변함없이 온 누리에서 900여 선교사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부담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 견디고 지내는 것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보석들입니다. 그들이 척박한 선교지 환경을 딛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 없는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선교지에서 씩씩하게 한 해를 보낸 선교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응원의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 박창홍 목사(2000선교본부)

선교사 자녀 간증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3살 때 엄마 아빠를 따라 선교지에 왔다고 해요. 이곳에 오고 얼마 뒤에 코로나19가 퍼지는 바람에 처음에는 태국에서 살았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태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어려웠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한국인이 우리 가족 밖에 없어요. 현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모, 삼촌들이 우리 가족이 잘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못했는데, ‘배낭프(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선생님이랑 동화책을 읽고 한글 공부를 하면서 잘 읽게 되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온누리교회에서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신나고 감사했어요. 혼자 노는 게 심심했는데 한나님이 남동생을 보내주셔서 같이 놀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라오스로 이사했

어요. 라오스는 가난한 나라고,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밖에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요. 집에 몇 번 도둑이 든 적이 있고, 경찰이 우리 집에 온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지금은 라오스 소수 부족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언니 오빠들은 고향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여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언니 오빠들이랑 놀면 행복해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라오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라오스로 보내신 것 같아요. 라오스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어요.
/ 김하엘 어린이(기예우/프영 자녀, 빌리온선교회)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믿음홀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화평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
소년문화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온누리 내척치유학교 모집
일시: 12월 6일~8일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신청: 12월 3일까지 아이스쿨
회비: 15만 원
문의: 010-7194-156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마노아티م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5년 2월 3일(월) ~ 13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
고 참조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
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
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텐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목사님!!

도대체 크리스천답게 사는게 뭔가요?

#모태신앙 #직분 #명예 #연애·결혼 #십일조 #교회 텃세 #술·담배



'너답게' 추천 회차

3편 신앙생활과 가정



4편 자녀의 신앙



6편 세상 문화 속 크리스천



회복 프로젝트

너답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 **CGN TV**

풍영 (월), **CGN** 유튜브(수)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